

일본 학술논문 서론의 문말표현 사용 양상*

- 서론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중심으로 -

임정아**
ija117@korea.ac.kr

<目次>

1. 들어가며	4. 결과 및 고찰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1 연구 주제 제시
2.1 서론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4.2 선행연구 검토
2.2 문말 표현의 분류에 관한 연구	4.3 논문 필자의 의견
2.3 문말 표현의 사용에 관한 연구	4.4 연구 목적 제시
2.4 본 연구의 위치	4.5 연구 방법 설명
3. 연구방법	4.6 논문 구성 제시
3.1 분석대상	4.7 논문의 의의
3.2 분석방법 및 분석 틀	4.8 문제제기
	5. 마치며

주요어: 일본어교육(Japanese education), 학술논문(Academic article),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 문말 표현(sentence ending), 논문 서론(introduction)

1. 들어가며

많은 일본어 학습자들이 리포트나 논문 등 학술적인 글을 쓸 때, 어떻게 문장을 써야 할지, 어떤 문말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떤 문말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의 문장이더라도 독자가 받아들이는 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논문의 경우, 더욱이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논문 서론은 특히나 많은 학습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누구나 논문을 읽을 때, 논문 서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논문에 있어서 서론은 본문 중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 이 연구성과는 2021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제시되는 부분인 동시에 논문의 구성과 연구 배경 등 다양한 내용을 함축해서 전달해야 하는 논문의 요약문이자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논문 서론의 특수성은 Swales(1990), 임정아(2020) 등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학술논문 서론에서 사용되는 문말 표현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문 서론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임정아(2020)의 논문 서론의 구성요소 분류에 따라 문장을 분류한 후, 각 구성요소별로 사용되는 문말 표현의 종류와 사용 양상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일본어 작문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본어 학습자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일본어로 학술적인 글을 쓸 때, 보다 설득력 있고, 일본어로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문말 표현에 대한 연구로는 문말 표현의 분류에 대한 연구와 특정 문말 표현의 용법에 대한 연구, 특정 장르에서 사용되는 문말 표현과 그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난 문말 표현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먼저 문말 표현의 분류에 관련된 연구로는 市川(1978), 탁성숙(2002) 등이 있다. 문말 표현 중에서도 ‘考える’나 ‘思う’와 같은 사고 판단을 나타내는 문말 표현의 용법에 관한 연구로는 杉田(1997), 竹村·丁(2014), 高橋(2010)가 대표적이다. 특정 장르에서 나타나는 문말 표현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문말 표현을 형태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趙·趙(2011)과 早川 외(2007)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나타난 문말 표현에 대해 연구한 연구로는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판단 표현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 小林(2002)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된 서론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먼저 개관한 후, 문말 표현의 분류에 대한 연구, 학술 논문에 사용된 문말 표현에 주목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2.1 서론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론의 구성요소는 서론의 구조를 연구하는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왔다. 서론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Swales(1990, 2004), Bunton(2002), 임정아(2020) 등을 들 수 있다. Swales(1990)는 미국 모어 화자가 작성한 논문 48편의 서론을 분석하여

내용을 3개의 이동 마디¹⁾, 11개의 단계²⁾로 나눠 각 분류의 구조를 모형화시킨 CARS 모형을 제시하였다. Swales(2004)는 기존의 CARS 모형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 서론의 구조를 15개의 소분류로 나눈 새로운 CARS 모형을 발표하였다.

임정아(2020)는 위의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분석 틀로 하여 한국 논문 서론과 일본 논문 서론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분석, 고찰하였다. 임정아(2020)가 분류한 서론의 구성요소는 <표1>과 같다.

<표1> 임정아(2020)에 의한 논문 서론의 구성요소 분류

1. 연구 배경 제시	연구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이해
	연구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2. 선행연구에 관한 언급	선행연구 검토 및 소개
	기존 학설에 대한 반박
	선행연구의 부족함 지적
	선행연구에 대한 반문
3. 본 연구에 대한 언급	선행연구 존중 및 계승
	연구의 주요내용 및 목적 제시
	가설 / 문제 제시
	연구 방법 설명
	주요 결과 제시
	본 연구의 의의
	본고의 구성 제시
기타(방침 / 신념 / 희망)	

2.2 문말 표현의 분류에 관한 연구

市川(1978)는 상체(常體)의 문말 표현을 문말의 형태에 따라 <표2>와 같이 분류하였다.

-
- 1) Swales(1990)의 원문에서 사용한 표현은 ‘Move’이지만, 본고에서는 임정아(2020)를 참고하여 ‘이동 마디’로 번역하였다. 3개의 대분류명은 다음과 같다. Establishing a territory, Establishing a niche, Occupying the niche
 - 2) Swales(1990)의 원문에서 사용한 표현은 ‘Step’이지만, 본고에서는 임정아(2020)를 참고하여 ‘단계’로 번역 하였다. 11개의 소분류명은 다음과 같다. Claiming centrality, Making topic generalization, Reviewing items of previous research, Counter-claiming, Indicating a gap, Question-raising, Continuing a tradition, Outlining purposes, Announcing present research, Announcing principal findings, Indicating RA structure

<표2> 市川(1978)에 의한 문말 표현 분류³⁾

상위분류	하위분류
「た」 계열	動詞+た、形容詞・形容動詞+た、~だった、~であった、~ていた、一般動詞+た(5분류)
非「た」 계열	動詞の終止形、形容詞・形容動詞、~だ・~である、~ている、一般動詞(5분류)
특수	言止め、その他(助詞止め、倒置的表現のほか、疑問文、命令文などの文末)(2분류)

위와 같은 市川(1978)의 분류를 참고로 탁성숙(2002)은 일본의 국어학 논문 20편씩을 수집, 학술논문 본문 전체에서 사용되는 문말 표현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그 결과, 市川(1978)의 분류를 발전시켜 문말 표현을 형태에 따라 크게 세 분류로 나누었다. 나아가 세 분류를 그 형태나 품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21개의 하위분류도 제시하였다. 그 분류를 <표3>에 나타낸다.

<표3> 탁성숙(2002)에 의한 문말 표현 분류

상위분류	하위분류
1류 : 「た」 계열	動詞+た、形容詞+た、動詞+補助動詞+た、~補助形容詞+た、~だった、~であった、助動詞+た、形式名詞+だった、形式名詞+であった(9분류)
2류 : 「非た」 계열	動詞の終止形、形容詞、動詞+補助動詞、~補助形容詞、~だ、~である、助動詞、形式名詞+だ、形式名詞+である(9분류)
3류 : 특수	体言止め、助詞止め、その他(3분류)

2.3 문말 표현의 사용에 관한 연구

早川 외(2007)은 문학적 학술 논문에서의 판단 표현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日本語教育’, ‘日本語の研究’, ‘日本近代文学’ 3가지 학술논문 학술지에서 각 10편씩 수집하여 ‘と考えられる’, ‘と考える’, ‘と思われる’, ‘と思う’, ‘と言える’, ‘だろう’와 같은 판단 표현의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 ‘日本近代文学’는 ‘だろう’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日本語教育’는 ‘と考えられる’가, ‘日本語の研究’는 ‘と言える’와 ‘と考えられる’가 많

3) 원문은 일본어. 본고의 필자 역.

이 사용되는 등 세부 분야에 따라 사용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무川 외(2007)은 근거의 유무와 해당 근거의 명시성에 따라 사용되는 표현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と云える’의 경우,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 반해 ‘だろう’는 개인적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나타나 주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였다.

한편, 趙・趙(2011)⁴⁾은 학술 논문의 서론과 결론에서 나타나는 문말 표현을 형태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론에서는 ‘동사 기본형(18.3%)’, ‘である(17.9%)’, ‘ている(14.1%)’ 순으로 많이 나타나며, 결론에서는 ‘である’, ‘れる/られる’, ‘동사 기본형’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趙・趙(2011)⁵⁾에서는 문말 표현의 형태에 주목하여 분석 및 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들이 어떤 문장에서 나타나는지,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2.4 본 연구의 위치

위와 같이 문말 표현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말 표현의 분류와 특정 문말 표현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논문의 문말 표현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논문 전체의 본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에 대해 알기 힘들고, 문장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른 문말 표현의 차이 또한 알기 힘들다. 이로 인해 실제 학술논문을 작성할 때, 해당 부분에 어떠한 형태의 문말 표현이 적합한지를 학습자가 참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학술논문 서론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임정아(2020)의 서론의 구성요소 분류를 활용하여 서론의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과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한다. 나아가 각 문말 표현이 구성요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양상에 대해서도 일부 고찰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기존의 논문에 사용된 문말 표현의 옳고 틀림을 비판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일본 학술논문 중에서도 일본어를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일본어 특성에 맞춰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어학 분야 논문의 서론에서 나타나는 문말 표현의 경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학술적 글쓰기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논문의 문장 내용별, 기능별 표현의 사용 양상과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일본어 작문 교육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趙・趙(2011)에서는 ‘はじめに’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서론’이라 함.

5) 趙・趙(2011)에서는 ‘おわりに’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결론’이라 함.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가장 일본 논문의 특성이 잘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는 일본어학 분야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논문의 종류는 학술지에 투고된 학술 논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학 학회 중 가장 역사가 길고, 일본어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일본어 학회⁶⁾’에서 발행된 ‘日本語の研究’ 학술지에서 최근(2019년 기준) 발행된 최신 논문 100편을 수집,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서론’은 임정아(2020)을 참고하여 논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시되는 장이자 ‘はじめに’, ‘序’, ‘序論’과 같은 표제의 본문을 서론으로 간주하여 수집한다.

또한 논문의 필자가 논문의 문말 표현으로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 사용 양상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은 논문 필자가 직접 작성한 서론의 본문만으로 한다. 즉, 서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문, 괄호 속 참고문, 예문, 표나 그림 속 텍스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3.2 분석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서론의 구성요소별로 어떠한 문말 표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분석 대상 논문의 서론 본문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수집한 후, <표4>의 서론의 구성요소의 기준에 따라 문장을 분류한다.

<표4> 서론의 구성요소 정의 및 예시

서론의 구성요소	정의	문장 수(비율)
연구 주제 제시	해당 논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이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	388(31.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인용한 문장	214(17.1%)
논문 필자의 의견	연구 주제와 선행연구에 대한 논문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	171(13.8%)

6) 구 국어학회. 2004년 ‘국어학회’에서 일본어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연구 목적 제시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적을 제시하는 문장	171(13.8%)
연구 방법 설명	연구 방법이나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	100(8.1%)
논문 구성 제시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	94(7.6%)
논문의 의의	해당 논문과 연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	53(4.3%)
문제제기	논문 주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문장	40(3.2%)
기타	연구 결과, 감사의 인사 등	11(0.9%)
합계		1242(100.0%)

구성요소별로 분류한 후, 각 문장의 문말 표현을 추출한다. 각각의 문말 표현은 탁성숙(2002)의 분류인 <표3>을 참고하여 그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표4>의 서론의 구성요소는 2장에서 소개한 임정아(2020)의 틀을 참고하여 일부 기능이 비슷한 구성요소는 병합하고, ‘주요 결과 제시’와 같이 수가 적은 구성요소는 제외하여 <표4>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표5> 분석 대상 논문의 서론 전체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た계열	동사+た, 형용사+た, 동사+보조동사+た, 보조형용사+た, だった, であった, 조동사+た, 형식명사+であった(8분류)	131(10.5%)
비た계열	동사의 중지형, 형용사, 동사+보조동사, 보조형용사, だ, である, 조동사, 형식명사+である(8분류)	1085(87.4%)
기타	형식명사+である, 체언, 조사(3분류)	26(2.1%)
합계		1242(100.0%)

분석 대상 논문의 서론 전체를 분석한 결과, 19종류의 문말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탁성숙(2002)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된 총 21개 분류(た계열 9분류, 비た계열 9분류, 기타) 3분류)의 문말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에서는 た계열 중 ‘형식명사+だった’, 비た계열 중 ‘형식명사+だ’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말 표현과 대분류별 문장 수 및 비율을 <표5>에 나타낸다.

7) 탁성숙(2002)에서는 상위 분류로서 ‘특수’라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해당 분류명을 ‘기타’로 통일한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비타계열** 문말 표현이 **타계열** 문말 표현에 비해 8배 이상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논문 서론의 경우, 과거의 사건 등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문장보다 앞으로의 예고나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연구 방법 설명, 필자의 의견 등 현재 혹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문장이 더 많기 때문이다. 4.1절부터는 논문 서론의 각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고찰한다.

4.1 연구 주제 제시

‘연구 주제 제시’는 해당 논문에서 다룬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이나 이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는 문장이다. 논문의 서론은 해당 논문의 배경 설명이나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주제 제시’ 문장은 논문 서론 전체 구성요소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배경을 설명할 땐, 어떤 문말 표현이 주로 사용될까? ‘연구 주제 제시’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의 종류와 비율을 <표6>에 나타낸다.

<표6> 연구 주제 제시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타계열	동사+た	18(4.6%)
	동사+보조동사+た	14(3.6%)
	보조형용사+た	2(0.5%)
	であった	4(1.0%)
	조동사+た	8(2.1%)
	형식명사+であった	1(0.3%)
비타계열	동사의 종지형	93(24.0%)
	형용사	17(4.4%)
	동사+보조동사	65(16.8%)
	보조형용사	17(4.4%)
	である	34(8.8%)
	조동사	93(24.0%)
	형식명사+である	22(5.7%)
합계		388(100.0%)

‘연구 주제 제시’ 문장 388문장 중 동사의 종지형과 조동사가 각각 93문장(2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의 종지형은 예를 들어 예 1)와 같은 문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 1) 古典語には、詠嘆の意味を持つとされる終助詞の一群が存在する。 (JP47 : 1)⁸⁾

예 1)은 연구 대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듯 논문 서론에서는 연구 대상에 대하여 앞으로 논문에서 전개해 나갈 내용 혹은 주장과 연관 지어 일반적인 혹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예 1)과 같이 일반적인 견해나 통념보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타인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타형인 동사의 종지형으로 많이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의 종지형과 마찬가지로 ‘연구 주제 제시’ 문장에서는 조동사의 사용도 많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예 2)와 예 3)과 같은 문장이다.

예 2) 移動動詞に係る格助詞「より」「を」は、「起点」および「経路」を表す用法を持つとされる。 (JP25 : 1)

예 3) 一般的に考えれば、これらの音図掲載の目的は「日本語音との対照によってオランダ語の発音と綴りの関係を理解させること」にあると言えよう。 (JP35 : 4)

예 2)와 예 3)의 경우, 문말에 ‘れる’, ‘よう’와 같은 조동사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 1)과 같이 동사의 종지형을 사용한 문장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객관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는 설명하고 있으나 비교적 주관성이 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론에서 연구 주제를 제시할 경우,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문장은 동사의 종지형을, 비교적 주관적인 문장은 조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2)와 예 3)과 같이 ‘とする’를 ‘とされる’로, ‘ある’를 ‘あると言えよう’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회피하는 표현을 ‘완화 표현’이라고 한다. 이준호(2012)는 한국 논문에서 나타나는 어휘, 문법적 표현 중 완화 표현과 객관화 표지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을 하였는데, 완화 표현으로서 사동형인 ‘보이다, 생각되다’, 종결어미 ‘-(으)ㄴ 수 있다, -다(이)라고 할 수 있다.’를 들고 있다. 이준호(2012)의 지적대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에 대하여 일반적 혹은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 전달할 때도 완화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괄호 안은 논문 식별 번호와 문장 번호를 의미한다. JP는 일본 논문임을 의미하며, JP 뒤의 숫자는 논문 번호, ‘:’ 뒤 번호는 문장 번호를 의미한다. 이하 모든 예문에 똑같이 적용한다.

‘연구 주제 제시’ 문장도 서론 전체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비타계열이 타계열에 비해 약 7배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주제 제시’는 서론의 전체 구성요소 중 타계열의 문말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성요소였다. 특히 동사+た형, 동사+보조동사+た형, であつた형, ‘조동사+た형은 전체 구성 요소에서 나타난 타계열의 문말 표현(130문장, 100.0%) 중 ‘연구 주제 제시’의 타계열 문말 표현(47문장, 36.1%)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논문 서론은 た형의 사용이 비타형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연구 주제 제시’에서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는 다른 논문들이나 이전 연구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표현으로 주로 필자의 의견이나 사실보다는 인용 표현에 가까운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이다. 논문 서론에서는 연구 주제나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성요소의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과 차이가 나타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사용된 문말 표현의 종류와 사용된 문장 수, 비율을 <표7>에 나타낸다.

<표7> 선행연구 검토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타계열	동사+た	17(7.9%)
	동사+보조동사+た	14(6.5%)
	보조형용사+た	2(0.9%)
	だつた	1(0.5%)
	であつた	1(0.5%)
	조동사+た	6(2.8%)
비타계열	동사의 종지형	61(28.5%)
	형용사	7(3.3%)
	동사+보조동사	62(29.0%)
	보조형용사	5(2.3%)
	である	10(4.7%)
	조동사	16(7.5%)
	형식명사+である	10(4.7%)
기타	체언	2(0.9%)
합계		214(100.0%)

‘선행연구 검토’ 문장의 경우, 전체 문말 표현 중, 동사+보조동사 형태의 문말 표현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동사의 중지형, 동사+た형 순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동사+보조동사와 동사의 중지형의 사용 예시를 예 4)와 예 5)에 나타낸다.

예 4) 浜田麻里(1988)は、これらを「悪口」という言語行動と捉え、日本語と中国語の「罵り」の違い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JP11 : 2)

예 5) 琉球方言のp音が文献以前に遡るとの見方がほぼ定説化されている中で逆に新しい可能性を示唆したものに早くは亀井孝他編(1964)がある。(JP77 : 8)

특히나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동사+보조동사형의 사용이 눈에 띄었는데, 예 4)와 같이 ‘考察している’, ‘述べている’, ‘指摘している’와 같이 ‘ている’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는 논문을 쓰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 즉, 과거에 이뤄진 연구이며, 과거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 시제인 비타형보다 과거 시제인 타형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타계열이 아닌 ている형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庵(2001)에 따르면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예 4)의 ‘浜田麻里(1988)’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는 관찰 시점을 중심으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시로 예 6)를 들고 있다.

예 6) 一昨年夏のテレビ講話をまとめた『権不十年』の著書によると、こんなことを述べている。

예 6) ? 『権不十年』の著書然、[細川氏は]こんなことを述べた。 - 庵(2001) pp.10-11에서 발췌

즉, 증거의 존재가 예 6)의 ‘~によると’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효력 지속, 기록’)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문장의 경우, 타계열보다 동사+보조동사(ている)의 사용이 비교적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논문의 경우, 선행연구 부분을 과거 시제로 서술하는 논문이 많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영향으로 ‘선행연구 검토’ 부분을 과거 시제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실제 예시를 예 7)에 나타낸다.

예 7) 伊集院(2004)は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にして、母語場面と接触場面からのスピーチスタイルの使い分けを研究した。(중략) 日高・伊藤(2007)はシナリオ「12人の優しい日本人」を資

9) 이와 같은 ‘결과잔존’의 기능을 나타내는 ‘-ている’의 형태를 工藤(1995)는 퍼펙트(パーフェクト) 용법이라 하였다.

料に登場人物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について研究を行った。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위크숍 발표문 중 발췌 -

예 8) 服部(1932)は、現在そのような長母音が残されていない琉球諸方言においても、その区別が特定の「アクセント」の型として保たれている場合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JP18 : 3)

예 7)은 예 4)와 예 5)와 달리 과거 시제, 동사+た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 논문에서도 예 8)과 같이 동사+た형의 사용도 일부(7.9%) 볼 수 있었다. 그러나 た계열의 전체 사용 비율에 비해 비た계열의 비율이 약 4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문장에서 た계열의 문말 표현보다 동사+보조동사, 즉, ‘ている’의 문말 표현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논문 필자의 의견

<표8> 논문 필자의 의견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た계열	동사+た	1(0.6%)
	형용사+た	1(0.6%)
	동사+보조동사+た	3(1.7%)
	보조형용사+た	7(4.1%)
	であった	1(0.6%)
	조동사+た	1(0.6%)
비た계열	동사의 종지형	21(12.3%)
	형용사	12(7.0%)
	동사+보조동사	12(7.0%)
	보조형용사	15(8.8%)
	だ	1(0.6%)
	である	17(9.9%)
	조동사	67(39.2%)
	형식명사+である	9(5.2%)
기타	조사	3(1.8%)
합계		171(100.0%)

‘논문 필자의 의견’은 연구 주제나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이다. 의견을 전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사상(事象) 전달 문장이 많았던

‘연구 주제 제시’, 인용 문장이 많았던 ‘선행연구 검토’와 비교하여 비교적 주관성이 높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논문 필자의 의견’ 문장에서 나타난 문말 표현의 종류와 사용 비율을 <표8>에 나타낸다.

‘논문 필자의 의견’ 문장에서는 조동사의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동사의 종지형이 12.3%로 조동사 다음으로 높았다. ‘논문 필자의 의견’ 문장에서 문말 표현으로서 조동사와 동사의 종지형이 사용되는 예시를 예 9)와 예 10)에 나타낸다.

예 9) しかし、形容詞には、そのような理由でシク活用化した語は一例も見当たらず、なぜシク活用形が生じたかについても再検討を要するものと思われる。 (JP18 : 3)

예 10) しかし従来の研究は後者を課題とするにとどめており、なお検討の余地がある。 (JP30 : 6)

예 9)와 예 10) 모두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 예 9)는 ‘思う’에 ‘れる’란 조동사를 붙여 ‘思われる’의 자발 동사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예 10)은 ‘検討の余地がある’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예 9)와 같은 자발 동사 형태는 ‘4.1 연구 주제 제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자신의 생각을 자발 동사로 나타냄으로써 생각의 주관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논문 서론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임에도 ‘れる’, ‘られる’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여 주장을 완화시키는 문장이 조동사 문말 표현 문장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9> 논문 필자의 의견 문장에 나타난 조동사의 종류

분류	문장 수(비율)
동사 미연형(未然形) ¹⁰⁾ +ない	38(56.7%)
れる・られる	22(32.8%)
う(だろう、よう)	7(10.5%)
합계	67(100.0%)

10) ‘동사 미연형(未然形)’란 용어에 대하여 일본어교육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근수(2011) 등 많은 일본어교육 관련 논문에서 일본어의 동사활용형을 미연형을 포함한 6가지의 활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연형’이란 용어에 대하여 ㄱ형 혹은 의지형 등의 명칭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용어를 참고하여 ‘미연형’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전체 서론에서 조동사가 문말 표현으로 사용된 240개 문장 중 67개 문장(27.9%)가 ‘논문 필자의 의견’ 구성요소에서 나타났다. ‘연구 주제 제시’ 다음으로 조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성요소였다. 비율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논문 필자의 의견’에서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조동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동사에는 ‘れる・られる’ 이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에 ‘논문 필자의 의견’ 문장에 나타나는 조동사의 종류와 각 종류별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9>에 나타낸다.

문말이 조동사로 끝난 67개의 문장 중, 38개 문장이 동사 미연형(未然形)+ない형을 사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조동사 ‘れる・られる’를 사용한 문장, 조동사 ‘う’를 사용한 문장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사 미연형+ない형 문장은 주로 ‘分析(い)ほとんどされていなく’, ‘明らかにされていなく’와 같이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れる・られる’형은 예 9)와 같이 ‘思われる’, ‘考えられる’, ‘見られる’와 같은 자발 동사 외의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은 볼 수 없었다.

4.4 연구 목적 제시

‘연구 목적 제시’ 문장은 연구의 주요 내용이나 목적을 서론에서 미리 제시하는 구성요소이다. 임정아(2020)에 따르면 ‘연구 목적 제시’는 일본 논문 100편 중 94편이 서론에 ‘연구 목적 제시’ 문장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 비율도 높으며, 그만큼 서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목적 제시’에 사용된 문말 표현의 종류와 각 문말 표현의 비율을 <표10>에 나타낸다.

<표10> 연구 목적 제시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た계열	동사+た	4(2.3%)
비た계열	동사의 종지형	110(64.3%)
	동사+보조동사	9(5.3%)
	である	7(4.1%)
	조동사	28(16.4%)
	형식명사+である	13(7.6%)
합계		171(100.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목적 제시’ 구성요소의 문말 표현은 총 6가지로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5가지인 ‘논문 구성 제시’ 다음으로 사용되는 문말 표현의 종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된 6가지 문말 표현 중에서는 동사의 종지형이 전체 171개 문장 중 110개 문장(64.3%)에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조동사가 28개 문장(16.4%)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구 목적 제시’에 사용된 동사의 종지형과 조동사 문말 표현의 예시는 다음 예문과 같다.

- 예 11) 本稿では、一つの言語表現に注目し、対訳会話書の横断的な調査を行うことを通して日本人の会話書と英米人の会話書の特徴を検討する。 (JP4 : 6)
- 예 12) 本稿では、近世中期以降、現代までの上方・大阪語、江戸・東京語の様子を概括的に捉えてみたい。 (JP5 : 8)

예 11)은 해당 논문(本稿)에서 무엇을 할지 연구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구 목적 제시’의 경우, 특히 동사의 종지형 중에서도 ‘명사+する’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말 표현(33문장)이 많았다. 주로 사용되는 명사로써 고찰(10), 검증(3), 검토(3), 주목(3)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관찰, 기술, 분석, 설명, 언급, 예측, 제시, 주장, 파악 등이 있었다. ‘명사+する’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明らかにする’란 문말 표현도 7문장으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본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연구 목적을 제시할 때, 비타형, 동사의 종지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현재형, 즉, 동사의 종지형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 제시’는 앞으로 제시될 본문을 예고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인 동사의 종지형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형, 즉,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문장도 적지만(2.3%)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시를 예 13)에 나타낸다.

- 예 13) そこで本稿では、従来の研究の概要を示し、ついで、研究の基礎となる資料上の諸問題と、時代ごとの社会的位置づけのための手法の二点について、それぞれ筆者の関心にしたがって細分し、現況の報告と今後の方向性を詳述することとした。 (JP45 : 7)

동사의 종지형 다음으로는 조동사가 16.4%로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동사 미연형+ない’와 ‘れる・られる’의 사용 비율이 높았던 ‘논문 필자의 의견’과 달리 ‘연구 목적 제시’에서는 예 12)와 같이 28개 문장 모두 조동사 ‘たい’로 문장이 끝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 논문에서는

‘考察したい’, ‘論じたい’와 같은 희망과 바람(願望)을 나타내는 조동사¹¹⁾를 사용하여 논문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 연구 방법 설명

‘연구 방법 설명’은 해당 논문에서 다루지는 연구의 방법이나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 포함된 구성요소이다. 본 구성요소는 ‘연구 목적 제시’와 ‘논문 구성 제시’와 함께 앞으로 서술해 나갈 해당 논문 본문의 예고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た계열에 비해 비타계열의 사용이 6배 이상으로 확연히 많다. 그러나 세부 분류로 들어가 보면, 동사의 종지형(59.0%) 다음으로 동사+た형(12.0%)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외 ‘연구 방법 설명’에서 나타난 문말 표현과 각 문말 표현의 문장 수 및 비율을 <표11>에 나타낸다.

<표11> 연구 방법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た계열	동사+た	12(12.0%)
	동사+보조동사+た	2(2.0%)
비타계열	동사의 종지형	59(59.0%)
	형용사	4(4.0%)
	동사+보조동사	2(2.0%)
	보조형용사	2(2.0%)
	である	3(3.0%)
	조동사	9(9.0%)
	형식명사+である	7(7.0%)
합계		100(100.0%)

예 14)는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예 15)는 연구의 방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임정아(2020)의 서론의 구성요소 분류¹²⁾에서는 연구의 방법 설명과 본고의 방침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구성요소가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로 보고 병합하였다. 실제로 연구의 방법과 방침은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11) 임창중(2009)를 참조.

12) 본고의 <표 2>를 참조.

예 14) 方法としては、ゴンザが関わった日本語訳部分の解釈、および対応するロシア語動詞の分析という手段をとる。 (JP73 : 7)

예 15) 以下、接尾辞をその音形にかかわらず「ハシ」と表記し、その派生語を総称する際は「～ハシ」と表す。 (JP78 : 22)

먼저 예 14)와 예 15) 모두 동사의 종지형을 사용함으로써 단정적으로 해당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연구 방법 설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는 같은 동사의 종지형이지만, 주로 ‘명사+する’가 많이 사용되었던 ‘연구 목적 제시’와는 달리 ‘조사(に, と)+する’, ‘呼ぶ’, ‘示す’, ‘扱う’, ‘用いる’와 같은 동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어휘적 특징은 별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어휘의 경향은 분석하지 않지만, 함께 동사의 종지형이 문말 표현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각 구성요소별로 나타나는 동사의 종류는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 설명’에서는 동사의 종지형 다음으로 동사+た형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사용 예시를 예 16)에 나타낸다.

예 16) 本調査では、「論旨」や「御教書」といった事実上の発信者と実際の書記者が異なる可能性の高いものは対象外とし、上申文・証文・書状を対象とした。 (JP34 : 12)

예 16)은 연구 방법, 특히,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설명인데, 동사+た형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구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에서도 예 16)과 같은 ‘동사+た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에 대한 방침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작성하는 시점보다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연구 방법 설명’ 문장의 경우, 동사의 종지형과 동사+た형이 혼재하고 있지만, 동사의 종지형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논문 구성 제시

예 17) 2 節においては黒島方言の概要を、音韻を中心に述べる。 (JP26 : 8)

예 18) 以下、本稿の構成を示す。 (JP10 : 16)

‘논문 구성 제시’는 예 17), 예 18)과 같이 본문의 구성을 서론에서 미리 예고하는 구성요소로, 논문 서론 내에서도 가장 메타언어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논문 구성 제시’도 위에서 살펴본 ‘연구 목적 제시’나 ‘연구 방법 설명’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에

대해 예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た계열 문말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 구성 제시’는 특히나 전체 8개 구성요소 중 가장 문말 표현의 종류가 적은 구성요소로, 총 5개 분류의 구성요소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동사의 종지형이 94개 문장 중 75개 문장(79.8%)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논문에서는 예고하는 성격을 띠는 구성요소의 경우, 미래 시제인 동사의 종지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나타난 문말 표현의 종류와 문장 수, 비율을 <표12>에 나타낸다.

<표12> 논문 구성 제시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비타계열	동사의 종지형	75(79.8%)
	형용사	2(2.1%)
	동사+보조동사	6(6.4%)
	である	6(6.4%)
	형식명사+である	5(5.3%)
	합계	94(100.0%)

본 연구 결과, ‘논문 구성 제시’ 문장의 경우, 문말 표현의 전체적인 특징이 ‘연구 목적 제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동사의 종지형이지만, 동사의 종류에는 ‘연구 목적 제시’ 문장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논문 구성 제시’의 경우, ‘명사+する’가 75개 문장 중 28개 문장(37.3%)에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어휘별로 보면, ‘述べる’가 75개 문장 중 17개 문장(22.6%)으로, ‘연구 목적 제시’에서 사용되는 동사 어휘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구 목적 제시’와 달리 조동사의 사용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논문 구성 제시’는 ‘연구 목적 제시’와 ‘연구 방법 설명’과 일부 비슷한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을 보이지만, 조동사나 た계열 문말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80% 가까이 되는 문장이 동사의 종지형 문말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론에서 논문의 구성을 제시할 때, 위와 같은 명확한 특징을 일련어 학습자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7 논문의 의의

‘논문의 의의’는 논문 서론에서 필자가 독자에게 해당 논문의 가치와 의의를 전달하는 구성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전달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논문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완화 표현을 사용하는 문장도 공존하는 구성요소이다. 예를 들어 예 19)와 예 20)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예 19) さらに、東京西南部・中心部と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首都圏におけるアクセント変化の動向についても知見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JP26 : 8)

예 20) (생략) 蘭文典を通して見えてくる日本語の文法観を読み取る試みに意義はあると考える。(JP10 : 16)

예 19)는 ‘だろう’란 추량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필자의 생각을 완화시키고 있다. 반면, 예 20)은 ‘意義はあると考える’란 직설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해당 연구에는 의미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구성요소이나 다른 느낌의 문장이 나타나는 ‘논문의 의의’에 사용된 문말 표현의 종류와 문장 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13> 논문의 의의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た계열	동사+た	1(1.9%)
	동사+보조동사+た	1(1.9%)
비た계열	동사의 종지형	14(26.4%)
	형용사	4(7.5%)
	동사+보조동사	5(9.5%)
	보조형용사	4(7.5%)
	である	4(7.5%)
	조동사	18(34.0%)
	형식명사+である	1(1.9%)
기타	조사	1(1.9%)
합계		53(100.0%)

‘논문의 의의’에서는 조동사의 사용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동사의 종지형이 26.4%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두 문말 표현 모두 50%를 넘지 않았으며, 전체 53개 문장에서 10종류의 문말 표현이 사용되어 다른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다양한 문말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논문 서론에서 논문의 가치를 전달할 때는 문장의 뉘앙스만큼이나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의의’는 조동사 중에서도 추량 표현인 う(だろう, よう)가 전체 조동사 18개 문장

중 8개 문장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れる・られる가 7개 문장으로 많았다. 이는 동사 미연형+な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う의 사용 비율이 낮았던 ‘논문 필자의 의견’과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4.8 문제제기

‘문제 제기’는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요소로 예 21)과 같은 문장이 포함된다.

예 21) 公的な場面での「ら抜きことば」の使用についてはどうであろうか。 (JPI : 7)

‘문제 제기’는 예 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의문문을 사용하여 제시하는 특징도 있어 유일하게 た계열과 비た계열이 아닌 기타 분류에 속하는 조사의 사용 비율이 높다. 전체 구성요소 중 유일한데, 분석 대상 서론 전체에서 조사를 문말 표현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총 21개 문장으로 그중 17문장, 즉, 81.0%가 ‘문제 제기’ 구성요소에 속한다. 그 외 ‘문제 제기’ 문장에 사용되는 문말 표현의 종류와 문장 수, 비율을 아래에 나타낸다.

<표14> 문제제기 문장에 나타난 문말 표현

대분류	문말 표현	문장 수(비율)
た계열	동사+た	3(7.5%)
	동사+보조동사+た	1(2.5%)
	조동사+た	1(2.5%)
비た계열	동사의 종지형	6(15.0%)
	형용사	2(5.0%)
	보조형용사	1(2.5%)
	조동사	6(15.0%)
기타	형식명사+だ	1(2.5%)
	체언	2(5.0%)
	조사	17(42.5%)
합계		40(100.0%)

조사 이외에도 문말 표현으로서 동사의 종지형, 조동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 제기’에서 나타난 동사의 종지형의 경우, 예 22)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이라기보단 문제를

지금부터 나열할 것임을 알리는 메타언어적 성격을 띠는 문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예 22) 以上より、接尾辞「ハシ」の変遷をめぐって次の点が問題となる。 (JP78 : 16)

조동사도 동사의 종지형과 마찬가지로 ‘問題といえよう’, ‘問題になるだろう’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보단 문제를 제시하는 내용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 텍스트에서 ‘だ’보다는 ‘である’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도 ‘である(형식명사+である, であった, 포함)’가 문말 표현으로서 사용된 문장은 전체 1242개 문장 중 170개 문장으로 약 13.7%를 차지하는 반면, ‘だ(형식명사+だ, だった 포함)’는 24개 문장으로 약 1.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3배가 넘는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 조조사 ‘かが 들어간 경우, 위와 같은 결과와는 반대로 ‘であろうか’보다 ‘だろうか’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분석 대상 전체에서 나타난 의문문의 문말 표현을 세부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15>에 나타낸다.

<표15> 의문문의 문말 표현의 세부 분류

분류	문장 수(비율)
だろうか	8(36.2%)
(で)あろうか	6(16.6%)
기타(동사+보조동사, 동사+た계열, 동사 종지형, なの)+か	8(36.2%)
합계	22(100%)

<표15>를 보면, ‘だろうか’가 22문장 중 8문장으로 단독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であろうか’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수로 봤을 때, 높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체 문말 표현에서 ‘である’가 ‘だ’에 비해 13배 많이 사용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장의 기능에 따라 문말 표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마치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학술논문 서론의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종류와 사양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전체에서 た계열보다 비타계열의 문말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체 문말 표현 중 동사의 종지형이 전체의 35.5%(1242개 중 441개)로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2) 본문 내용을 예고하는 성격을 가지는 구성요소(연구 목적 제시, 연구 방법 설명, 논문 구성 제시)의 경우, 과반수가 문말 표현으로서 동사의 종지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3) ‘선행연구 검토’ 문장은 동사+보조동사, 특히 ‘효력 지속, 기록’ 용법의 ‘ている’가 문말 표현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4) 구성요소에 따라 조동사의 사용 양상이 달라지는데, ‘연구 주제 제시’는 ‘れる・られる’가, ‘논문 필자의 의견’은 ‘동사의 미연형+ない’가, ‘연구 목적 제시’는 ‘たい’, ‘논문의 의의’는 ‘う(だろ, よう)’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학술논문 서론의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종류와 각 문말 표현 별 사용 양상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말 표현을 형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구성요소별로 많이 사용되는 문말 표현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구성요소에 따라 같은 형태의 문말 표현이어도 어휘적인 차이나 사용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어휘적 특징 및 질적 연구를 향후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이준호(2012)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이중언어학(49)』이중언어학회, pp.269-297
- 임정아(2020)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텍스트 비교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9-47
- 임창중(2009) 『동사+たい에서 ‘が’, ‘を’조사 선택에 관한 연구』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p.6
- 장근수(2011) 「일본어 동사활용형에 관한 재고 - 학교문법과 일본어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日本語教育研究(20)』한국일어교육학회, pp.97-107
- 탁성숙(2002) 『문말표현에 관한 연구』보고서, pp.289-298
- 庵功雄(2001) 「テイル形、テイタ形の意味の捉え方に関する一提案」『一橋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第4号, 一橋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75-94
- 市川孝(1978) 『国語教育のための文章論概説』教育出版, pp.190-191
- 工藤真由美(1995)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ひつじ書房, pp.25-161
- 小林一貴(2002) 「日本語学習者の作文における判断の表現特性」『일본문화학보』13, 한국일본문화학회, pp.37-50
- 小森万里・三井久美子(2021) 『レポート・論文を書くための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 pp.116-120
- 杉田くに子(1997) 「學術論文における思考判断を表す文末表現の用法 -「と思う」と「と考える」を中心に-」『言語文化』34, 一橋大学語学研究室, pp.105-112
- 高橋美保(2010) 「思考動詞「思う」「考える」の意味記述 - フ格名詞句との関係を中心に -」『한국일본어학회 학술 발표회』한국일본어학회, pp.13-20
- 竹村和子・丁仁京(2014) 「日韓両言語の文末思考動詞に関する研究 - 「と思う」と「고 생각하다」を中心に -」

『日語日文学研究』91, 한국일어일문학회, pp.44-68

趙宣映·趙南星(2011) 學術論文の文末表現に関する一考察 —「形態」に注目して— 『日本文化學報(50)』한국
일본문화학회, pp.93-110

浜田麻里·平尾得子·由井紀久子(2014) 『大学生と留学生のための論文ワークブック』くろしお出版, pp.2-76

早川幸子·古本裕子·苗田敏美·松下美知子·岡沢孝雄(2007) 「文系學術論文における判断表現の使用実
態」 『金沢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10, 金沢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11-29

Bunton, D.(2002) 「Generic moves in ph.D. thesis introduction. In J. Flowerdew(Ed.), 『Academic Discourse』,
Routledge, pp.57-75.

Swales, J. M.(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ales, J. M.(2004), 『Research genres :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4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일본 학술논문 서론의 문말표현 사용 양상

- 서론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중심으로 -

임정아

본 연구는 일본 논문 서론의 구성요소별 문말 표현의 특징 및 사용 양상 및 특징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일본어 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日本語の研究’에서 최근 투고된 100편의 논문을 추출하고,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서론의 구성요소의 분류는 임정아(2020)을 참고하여 서론을 내용에 따라 크게 8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분류 후, 각 구성요소에 어떠한 문말 표현이 사용되는지, 문말 표현의 종류와 각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 및 경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서론에는 た계열보다 미た계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세부 분류 중에서는 동사의 종지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논문의 본문 내용을 예고하는 성격을 가진 구성요소(연구 목적 제시, 연구 방법 설명, 논문 구성 제시)의 경우, 과반수가 동사의 종지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같은 조동사여도 구성요소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달라지는데, ‘연구 주제 제시’는 ‘れる・られる’가, ‘논문 필자의 의견’은 ‘동사의 미연형+ない’가, ‘연구 목적 제시’는 ‘たい’, ‘논문의 의의’는 ‘う(だろ, う)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장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문말 표현의 사용 양상과 어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entence-ending expressions in the Introductions of Japanese Academic Articles

-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onent -

Lim, Jeong-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usage patterns, and features of sentence-ending expressions in different components of the introduction of Japanese articles. 100 articles, which recently submitted to the journ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published by the Japanese Linguistic Society of Japan, are targeted for analysis. The classific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introduction was based on JeongA Lim(2020) and reclassified them into eight major component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After the classification, It is considered w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types of sentence-ending expressions used in each component, as well as the usage patterns and tendencies of each type of sentence-ending expression ar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nonたseries’ was used more often than “たseries” in Japanese introductions, and The imperfect form of the verb were used most frequently among the detail categories. In the case of components that had the character of announcing the content of the body of the paper(presentation of the purpose of the research, explanation of the research method, and present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paper), the majority used The imperfect form of the verb. It was also found that other elements of the same auxiliary verb were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stituent. For example, for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theme’, ‘れる・られる’ was used most frequently, for ‘the opinion of the author of the paper’, ‘The negative form of the verb + not’, for ‘presentation of the purpose of the research’, ‘たい’, and for ‘the significance of the paper’, ‘う(だろ, う)’ was used most frequent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usage patterns and vocabulary of sentence-ending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content and function of the sentence.